

익산시, 9월 신청사 업무 개시

현 청사 철거 뒤 시민 위한 도서관 · 광장 등 2단계 공사 내년까지 순차적 진행

익산시청이 오는 9월이면 54년 만에 새집으로 이사를 간다.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 오는 8월 1단계 완공 계획에 맞춰 막바지 마감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청사는 남중동 현청사 바로 뒤에 자리한다.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4만 234㎡ 규모다. 시청사와 익산시의회 청사가 함께 조성되며 오는 8월 준공이 이뤄질 계획이다. 공사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1단계는 신청사 사무공간을 완공해 오는 9월까지 모든 부서의 입주와 마치는 단계다. 이후 2단계는 1년 내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다목적홀과 소공원 등 시민을 위한 전면 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1년 12월 착공한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의 1단계 공정은 6월 초인 현재 기준 88%다. 오는 8월 1단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신속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해 9월 중

에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기간 분청과 제2청사, 팔봉동 임시청사 등으로 분산돼 있던 시 부서들이 한 지붕 아래서 근무할 수 있게 돼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익산의 역사문화 유산인 미륵사지 석탑을 시청 건물 입면에 상징화한다. 또 기획 단계부터 시민 친화적 청사를 목표로 한 만큼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시는 시청사 주변으로 사립이 모이고 시청 인근 상권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사 저층부에는 종합민원과 시급고 등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

한 시설을 우선 배치했다. 또 다목적홀과 시민교육장, 작은도서관, 다목적광장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별도로 조성된 의회동은 4개 층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도 층별 주요 시설로 △2층 기획안전국 △3층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안전국 △4층 부시장 직속부서, 재난상황실, 경제관광국 △5층 경제관광국 △6층 복지교육국 △7층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8층 녹색도시환경국, 건설국 △9층 건설국 △10층 식당 등이 조성된다.

유원항 건설국장은 "50년 넘게 사용한 청사에서 시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새 청사로의 이동을 앞두고 있다"면서 "신청사 건립공사의 공정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70년 건립된 익산시 현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낡고 노후된 청사 중 하나로 꼽힌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구조적 안전성, 열악한 환경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협소한 공간 탓에 청사를 분산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익산=이재춘 기자



도심 속 명품 숲으로 재탄생한 마동공원 이 시민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선물 같은 일상을 선사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달 준공한 마동공원이 익산 시민 누구나 편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마동공원 익산 도심에 안기다

전북자치도 첫 민간특례사업... 축구장 24개 합한 대규모 공원

도심 속 명품 숲으로 재탄생한 마동공원이 시민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선물 같은 일상을 선사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달 준공한 마동공원이 익산 시민 누구나 편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마동공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공공특례사업의 첫 성공 사례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녹지 공간이 폭격이 더해진 도시 숲공원으로 변모한 것이다.

마동공원의 면적은 17만 1,855㎡로 축구장 24개를 합한 규모다. 한눈에 담기에도 어려운 큰 규모지만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시민 행복을 위한 작은 배려들이 돋보인다.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식생을 살려가며 조성했다. 보니 모양이 네모반듯하게 정형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원은 위에서 아래로 길쭉한 모양을

유지하다 옴다리(나무)를 건너면 사자 형태로 나뉘어 왼쪽으로 기다란 산책길과 숲이, 오른쪽으로 대규모 테니스장이 자리한다.

북쪽으로는 선화로 귀금속거리 부근부터 공원이 시작된다. 밖에서 시원한 물을 뿜는 인공폭포가 뜨거운 한낮 열기를 식히는 공간이다. 아간에는 은은한 조명이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폭포가 있는 산수원 광장에서 남쪽으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생태습지와 유아숲 체험원이 있다. 주차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린이들과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도 제격이다. 초화류가 울려 퍼지면 시민 행복을 위한 작은 배려들이 돋보인다.

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연지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교육 · 돌봄 기반 확대... 유아 생존수영 도입

시-도시관리공단 업무협약... 유아 신체 성장 · 발달 도움 · 지역 정주 선순환 기대

익산시가 익산시도시관리공단과 양질의 교육 · 돌봄 기반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익산시는 지난 5일 익산시도시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유아 생존수영 교육을 추진한다.

유아 생존수영 교육은 익산시, 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기반형 유아교육 · 보육 혁신지원사업'의 교육과정 중 하나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유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단은 전문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장소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익산시는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



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과 동시에 신체 성장과 발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생활관과 서부권다목적체육관 등 우수한 기반 시설과 연계한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보균 이사장은 "유아들이 안심하

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유능한 강사들을 배치하겠다"며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유아 생존수영 교육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장애인 협의체 '어울림 한마당' 개최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주최한 '제3회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5일 군산시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성인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470여 명이 함께 어울리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래 이번 행사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공모사업인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으로 2023년도에 추진됐다. 추진 결과 후 실시된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군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사업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오전 오후로 나눠 열린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명랑운동회, 소그룹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고위공직자 릴레이 청렴 캠페인 추진

군산시는 지난 5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부시장을 비롯한 4급 국 · 소관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주관, 릴레이 청렴 캠페인을 시작했다.

릴레이 청렴 캠페인은 조직의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청렴도를 빠른 시일내에 올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획되었다.

이 캠페인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1명이 2주 간격으로 청렴 캠페인을 주관해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첫 캠페인은 직원들의 왕래가 많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시청 로비에서 제치있는 '청렴 포어 피켓 홍보'와 부패 풍선 터트리 게임'으로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부패 풍선 터트리기는 부정청탁 · 갑질 · 연고주의 특혜 · 사익추구 등 문구가 적힌 풍선을 핀으로 맞춰 터트리면 청탁금지 · 갑질근절 · 공정부패 · 공익추구 같은 청렴 메시지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어족자원 위한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군산시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하여 우량종자 방류와 교부까지 어종인 감오징어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란 서식장 조성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및 무분별한 어획으로 어족 자원이 급감하여 해양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어족자원의 회복에 핵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올해 총 6억 7,800만원을 투입, 금어기인 6월경에 집중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어종들은 어업인 소득원이 높은 넙치, 조피볼락, 감성돔이다. 별

도로 내수면인 육구 · 육녀저수지에는 새끼 뱀장어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5월 말 관내 해역에 최초로 방류하는 낚지는 인공산란장에서 교접된 암수 어미 낚지로 금어기(6월 1일 ~ 30일) 중 산란을 통한 어민 낚지 자원 확보 등의 자원 증대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하는 주꾸미, 꽃게, 바지락, 바다 장치를 무상으로 분양받아 올해 말까지 방류해 관내 어족자원 회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양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 · 금당 · 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